

時兆에對한新所感과新教示

시도

신조감

신교시

(六)

金

相

瀋

자율이상, 「자율거법」  
者曰地割、小者曰縱裂) 이 생기는結果

결과

이무서운津浪

一四·津浪

路加禪普廿一章廿五節에「바다물결이운매」  
即此地震파한가지로나리나는津浪(俗稱海嘯)갓  
普通出稱하나 地震學者들은 此津浪이  
흔것을 가라쳐말삼하심이을시다。此津浪파浦嘯를  
합니다。그런데 此津浪이 離地震파한가지로 나리  
나는者이라고 아모런境遇이나 떡썩반다시한가지로  
나는것이아니라 다만 離一震央(或震源)이 海底에

三丈이오 特別한境遇에는

九十三尺싸지도된다고하

는대 그波濤가一時間에十五마일(普通) 또는廿五마일의(普通) 大遠

力으로

걸터드리오는故로

사람들은잇처逃亡(普通) 치못해야

그만製穀을當하고 家屋도沈破와流失을當하나니

가옥침파당

유실가옥당

그만製穀을當하고 家屋도沈破와流失을當하나니

가옥침파당

유실가옥당

림으로 明治廿九年六月十五日夜에나리 날

日本三陸

일본삼륙

의 大津浪갓흔것은

류失家屋

유실가옥

干을생기게하였다고합니다. (세계의 대여진

세계의 대여진

一次뿐아니라 進退無常한中에

경

죽은자(死者) 二萬二

이 激烈하고 또한強烈하게

震央이 海底에잇스면

그海底附近

지하야그리나하면

震裂陷落함으로因하야

인

크재 斷層

地의平而에落層파斷崖가生함)

파地割

大

기차 汽車 가 돈밀파 鐵橋를 過하듯 수다 數多의 암석 石이 高山絕壁  
 정점 頂에서 崩落轉下하듯 원연구 鳳天風에 萬雷가 울어 오듯하는  
 찰다진 雜多戰慄의 소래로 밀너 드리오 매 사람들이 恐懼顛沛하  
 풍입 風入共入 게 되는 무서운 此災罰이 올시다。 주에 이 진도  
 말세 末世에 반드시 있슬 徵兆이라고 一般 우리 信徒의 재 이  
 갓치 明白히 預告하셨스니 오! 귀가 있어서 드를者는 듯고  
 마암이 있어서 쟄다를者는 쟄다를지어다. 아~엔。

一五·大風 (默示七〇一下)

이대풍 이대풍 釋하였나니 그引照통 依하야 얼년생각하면 多數가 戰爭으로 解  
 하나 文字대로 大暴風이나 回旋風으로直解하는것이  
 가 할것이외다 二〇廿三、○ 試思하여 봅시다。 近者の 風  
 은 當으로 非常하고도 些하駭怕한 大暴風이라고 할  
 만한것이 만홍을 우리가 날노 新聞으로 뜯고 눈으로 보는  
 바가 아니오니가。 그數例를 들면 一八四二年二月四일에  
 氷차 氷車가 鐵橋를 過하듯 수다 數多의 암석 石이 高山絕壁  
 정점 頂에서 崩落轉下하듯 원연구 鳳天風에 萬雷가 울어 오듯하는  
 찰다진 雜多戰慄의 소래로 밀너 드리오 매 사람들이 恐懼顛沛하  
 풍입 風入共入 게 되는 무서운 此災罰이 올시다。 주에 이 진도  
 말세 末世에 반드시 있슬 徵兆이라고 一般 우리 信徒의 재 이  
 갓치 明白히 預告하셨스니 오! 귀가 있어서 드를者는 들판에  
 마암이 있어서 쟄다를者는 쟄다를지어다. 아~엔。

라고 할수는 입순죽 五岬外에 날녀 같다하니 此種의 風도 非常한 風이지만  
 에 西洋었던 곳에서는 拆木拔屋의 風이 입순죽 으로 들여온니는 同樣에  
 으로 들여온니는 同樣에 五岬外에 날녀 같다하니 此種의 風도 非常한 風이지만  
 라고 할수는 입순죽 五岬外에 날녀 같다하니 此種의 風도 非常한 風이지만  
 멋미突을 빠여온니 五岬外에 날녀 같다하니 此種의 風도 非常한 風이지만  
 일에 西洋었던 곳에서는 拆木拔屋의 風이 입순죽 으로 들여온니는 同樣에  
 일에 西洋었던 곳에서는 拆木拔屋의 風이 입순죽 으로 들여온니는 同樣에  
 엘니야를 大風으로 다려가셨다 하였스니 些하駭怕한 大暴風이나  
 이재 前無後無한 一、二의 예를 봄면 一九二五年六月五  
 일에 西洋 미소리에서 自領中一臺를 窗中으로 불여온  
 엘니야가 떠러트림으로 二人이 跛死하였다하고 又一九  
 풍우 風雨로 因하여 死亡者 一千五百餘人파 負傷者五  
 千餘人파

人이 생기었다 하고 又同年九月에  
인력 차를 及 西比利亞에서는  
車十三臺를 順復식했다 (毎日) 하니  
참으로 空前絕後의 慢恆할 만한 大風이요  
의 大風이 외다。

또동년월

일본동경

대

형구

화물

기차

대

공

화

차

비상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이도

자자

가장 아는 척하고 날아기를

나기를

이루었지

하고

나를

此等의

것을 바람

이루었지

말노

화물

汽車

大

대

개복시

시록

제

해석

을 알겠지 만은 이 피식진 雨雹은 머구나 非常하고 무서

운刑具

을 시다.

그러나

잇음이 적은

所謂信者

라하는



天地를 일우 계한赤電 (赤電) (東亞日報) 파 又一九二五年二月廿四  
日에 全南綾州에서 三時間 을繼續하야 나린 赤雪 (赤雪) (東亞日報)  
又 산 남한산 또 거후 산 또 거후 산 또 거후 산 또 거후 산  
又 跖스 山과 갓호高山에니 又氣候가 甚히 찬地方에는  
赤色의 雪이나 려서 맛치赤綫을 平布함과 갓호일이 往常  
세상 공인 與認하는 여인즉 이재當身은 此를 엿더 켜하시 탐  
世上이 認하는 여인즉 이재當身이 世上이 認하는 것을 흔  
자否認할수업는 일이오 也 萬一是認한다하면 世上에  
여지홍노 紅雨와 赤雪만있고 赤電은 업生理가 있습니가  
선萬一업다 할것갓호면 雨雪의 科學과 雨電의 理學이다  
로다 할것아니겟습니가 特別히 赤雪에 對하야 一言  
을 費고 저하나이다。世上에 白雪이 있는 것만 알고 赤雪  
獨逸에는 此赤雪을 (血雪即 Blut-blensee)라는 名詞가 있다  
하고 又(赤雪即 Rotenschnee)이라는 名稱파 又一八一

赤雪이 瑞士國 알프스에 린밀이잇는故로 (얼  
卑이—리(Alpenrot) 即 알프스의赤色이라는意味의名稱  
들이잇다하고 又 오스로텔나의지로 루와 北米의아이슬  
등지에 赤雪이나린일이 또한잇다고 探險家들  
들도等地에 赤을보는  
得見하였다합니다。(未完)